

노인을 돕는 멋진 노인들



지난해 12월 6일 대구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에서 이웃돕기 모금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깨친멋노인자원봉사회 회원들.

포근한 겨울 아침, 대구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은 입구에서부터 활기가 넘친다. 노란 어깨띠를 두른 노인들이 차례차례 반가운 인사를 건네며 안부를 나눈다. 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봉사모임 ‘깨친멋노인자원봉사회(이하 깨친멋)’ 회원들이다.

“이웃돕기 모금캠페인을 하고 있으니 많이 참여해주세요!” 활기찬 회원들의 목소리에 노인들이 섣뜻 지갑을 열어 모금에 동참한다. 깨친멋 회원들은 2015년부터 일 년에 두 번 모금캠페인을 열어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을 돕고 있다. 2023년 아산재단의 아산상 자원봉사상 상금도 전액 지역 내 저소득 가정 아이들을 돕기 위해 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에 기부했다.

“수상 소식을 듣자마자 상금은 기부하자고 일찌감치 결정했어요. 우리 봉사회 이름처럼 ‘깨끗하고 친절하고 멋지게’ 쓰고 싶었거든요.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너무 뿌듯합니다.” 깨친멋 하영화 대표의 말이다.

복지관 살림 도맡는 자발적 봉사단

깨친멋은 복지관이 문을 연 2005년, 복지관 이용 노인 65명이 자발적으로 만든 봉사 모임이다. ‘깨끗하고 친절하고 멋진 노인상’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아 ‘깨친멋’이라는 이름으로 출발해 지금은 총 135명의 회원이 함께하고 있다. 최고령 회원이 102세, 제일 젊은 회원이 68세, 평균 연령은 78세다.

이들의 가장 일상적인 봉사는 12개에 달하는 복지관 내 프로그램실 관리다. 복지관 전체 이용자가 하루 평균 400명이 넘는 터라 깨친멋 회원들은 매일 30명의 봉사자를 투입해 프로그램실에서 활동한다. 예를 들어 노인들에게 인기가 많은 찜질방과 노래방에서는 기기를 조작하고, 이용 시간을 철저히 관리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단순 봉사처럼 보이지만 프로그램실 관리는 생각보다 쉽지 않다.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둡고 체력이 약하기 때문에 2인 1조 근무, 하루 2~3팀 활동이 기본이다.

또 한 가지 깨친멋 회원들은 복지관 2층에 있는 ‘청춘카페’에서 실버 바리스타로도 활약한다. 노인들의 눈높이에 맞춰 대표 메뉴 ‘아 뭐라카노(아메리카노)’를 비롯해 ‘바닐라 피아도(바닐라라떼)’와 건강차, 주스 등을 1,000원에서 2,5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고 있다. 연간 2천여만 원의 매출 중 재료 구입비를 제외하고 남는 수익은 모두 후원하고 있다.

나눔으로 키우는 자부심과 자존감

깨친멋의 활동은 복지관 안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노인이 노인을 돕고 지역사회에 봉사와 나눔의 가치를 전파한다’라는 설립 취지 그대로 1년에 두 번 모금캠페인을 통해 후원금을 모집하고 지역 내 소외된 노인 지원, 복지관 이용자 무료



깨친멋 회원들은 일 년에 두 번 모금캠페인을 통해 후원금을 모집하고 지역 내 소외된 이웃을 돕고 있다.




복지관 ‘청춘카페’에서 실버 바리스타로 활동하고 있는 깨친멋 회원들.

급식, 문화공연 지원 그리고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장학금으로 기부한다. 깨친멋이 지속적으로 기부하는 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의 경우 누적 후원금이 2,600만 원에 달한다.

코로나19 때도 깨친멋 회원들의 활약이 빛났다. 복지관 입구에 설치된 방역 게이트에서 체온 체크, 마스크 착용 안내 등을 하며 안전을 지켰고, 지역 독거노인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며 안부를 확인했다. 마스크봉사단에서는 천 마스크 1천 개를 만들어 취약계층 가정에 나눠주기도 했다.

하영화 대표는 스스로를 봉사로 새 삶을 시작한 산증인이라고 말한다. 젊은 시절 큰 병을 앓아 건강이 좋지 않았는데, 우연히 시작한 깨친멋 활동을 통해 활기찬 노년으로 거듭난 것이다. “봉사를 하면 할 일이 생기고 여러 사람 만나서 이야기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장애가 있거나 아픈 곳이 많을수록 봉사하라고 권합니다. 우리 회원 중에도 봉사하면서 건강이 좋아진 사람이 아주 많아요.”

깨친멋은 나이가 들고 체력이 약해도,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주변과 나누며 즐겁게 살 수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이미 복지관 회원들 사이에서는 ‘인생의 롤 모델’로 자리매김한 깨친멋이 아름다운 노년을 고민하는 노인들의 모범답안이 되기를 기대한다.  글 최주연